

# 사조그룹 합평군민 우롱하나

## 760억 규모 육가공 공장 투자 약속 차일피일

극대 최대 참치 원양어업 및 식품 가공 전문회사인 사조그룹이 합평군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규모 도계(屠鷄) 및 육가공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사조그룹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안병호 합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조그룹은 축산분야 총괄법인인 ㈜사조아그로를 설립해 합평군 학교면 일원 14만2000㎡ 부지에 2013년까지 760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5만㎡ 규모의 최신 도계설비와 계류장, 물류창고, 사료제조공장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지난해 12월 사료제조 공장을 설립한 이후 핵심사업인 도계 및 육가공 공장 설립 절차를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밟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합평군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사조그룹 서울 본사를 방문해 협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사조그룹 측은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도와 합평군은 사조그룹이 입주할 합평 학교면 일원에 농식품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해 축산물 가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민 정모씨는 “사조그룹 공장 설립 소식에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후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군은 안병호 군수 취임이후 첫 대기업과 투자협약인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공장이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평군 관계자는 “사조그룹 측은 올해 초 구제역 파문과 다른 사업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합평에 대한 투자가 보류되고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다”며 “합평군으로서는 사조그룹 공장이 유치되면 4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사업 때문에 (합평군에 투자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오늘 점심 뭘로 할까?”

한쪽 집게발이 큰 것이 특징인 농가와 공기호흡을 하는 썩뎀어가 영광군 백수면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농가는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서식장소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노고단 오실 땐 예약하세요”

## 강진군, 출항기업 한조와 투자협약

### 지리산공원사무소 내달 23일부터 탐방예약제

다가오는 휴가철에 지리산 노고단을 탐방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정상 자연생태계 보전 및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제한적 탐방예약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탐방예약제는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성수기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일 6회(9~11시, 오후 1~3시)에 걸쳐 운영된다.

탐방객 수는 노고단 정상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의한 수용력을 고려해

1회 185명씩 하루 1120명으로 제한하며, 인터넷 예약자(www.knps.or.kr) 및 현장 접수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노고단 정상 탐방을 원하는 탐방객은 인터넷 예약 후 예약 확인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김진광 남부사무소장은 “노고단 정상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수기에 한해 제한적 탐방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문의(061-780-7700)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전남도와 강진군은 출항기업인 (주)한조(회장 김승재)와 지난 2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황주홍 강진군수, (주)한조 김승재 회장, 김동호 이사, 김창민 이사, 김정열 재정 향우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조는 1단계 사업으로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강진 칠량농공단지내 공장부지 4만6000㎡를 매입하고 2012년도에는 공장동 6700㎡와 사무실, 숙소 등 본관동 3300㎡를 건립한다.

이어 2013년도까지 부산 사업장을 강진으로 이전해 200여명의 고용 규

모를 갖추고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가며, 2014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중국 심양의 해외 사업 부분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주)한조는 방산제품과 선박 및 자동차 부품에 소요되는 엔진 방열기와 공기냉각·오일 정화기 등의 기술 집약형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며 2010년 460억원의 연매출과 300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황주홍 군수는 “앞으로 (주)한조가 정상 운영되게 되면 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크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참조기 민간양식 돌입...산업화 활발

### 전남해양수산원 12만마리 방류

서해 특산품인 참조기가 본격 양식되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8일 영광군 염산면 황화도 해안가에서 칠산바다 자원회복을 위한 참조기 방류행사를 갖고 어린 참조기 12만 마리를 방류했다.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08년부터 참조기 인공종묘 대량 생산연구에 박차를 가해 2009년 산업적 가치가 있는 30만마리를 생산한데 이어 올 6월 말 현재 우량 참조기 치어 28

만 마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참조기 인공종묘 대량 생산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 종묘 배양장에서 참조기를 생산·판매하는 산업화를 이뤘다.

특히 영광, 신안, 완도 등지에서 어린 참조기 11만 마리가 본격적으로 양식되면서 참조기 산업의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참조기는 만 1년이면 17cm 정도의 상품크기로 성장하고 이듬해 가을이면 25cm 이상의 대형 크기로 자라 2년이면 상품화할 수 있다.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앞으로 ▲현재보다 빠른 참조기 종묘 생산 ▲선발육종을 통한 양식기간 단축 ▲사육수 재활용을 통한 통질기 비용절감 등 추가연구에 나선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양광형 영광지소장은 “참조기를 국내 3대 양식품종으로 육성해 양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참조기의 어획량 감소로 인해 2009년 대비 3.5배가량 가격이 뛴 가운데 지난 28일 영광군 염산면 옥소리 황화도에서 참조기 종묘 방류행사가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말 타며 호연지기 길러봐요”

### 도, 10월까지 승마 체험교실 운영

전남도는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4개 시·군에서 일반 및 장애학생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승마교실은 승마를 국민레저스포츠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국민 말타기 운동’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말과 친해질 수 있는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연지기를 기르고 장애학생에게는 승마를 통한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목포, 순천, 무안, 신안 등 4개 시·군에서 일반 학생 생활 승마와 장애학생 재활승마로 나눠 각각 92명, 40명 등 총 132명이 참가한다.

일반학생은 기간 중 8회, 장애학생은 16회의 강습을 받게 되며 한국마사회와 전남도, 해당 시·군에서 강습비의 약 88%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2일부터 한달간 신안 임자해변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해 대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8월 6일에는 임자 해변 말(馬) 축제를 개최하는 등 승마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승마는 인터넷 게임 등 실내 활

동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정서 순화 및 유연성, 근력 등 체력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수상배경: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웰드릭 쥬스 한방오리구이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 古家 고향의 맛-

###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 고가의약오리탕

한/식/뷔/페  
6,000원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오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게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ambi